

완도군 산림·해양 복합치유 시설 조성

전국 유일...약산 치유의 숲 개장 60ha 난대숲에 해수족욕탕 갖춰 해양·산림 치유 한 곳에서 동시에



전국 유일 산림·해양 복합치유 시설인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전경. <완도군 제공>

완도 약산에 전국 유일의 산림·해양 복합치유 시설인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이 조성됐다. 완도군은 지난 22일 약산면 해동리에서 신우철 완도군수,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약산면 해동리 60ha 면적에 조성된 치유의 숲은 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됐으며, 불기시나무, 구실잣밤나무, 동백나무 등 자생 군락지로 이뤄진 난대 숲 수림대와 다도해의 수려한 풍경이 함께 해 체험객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치유센터(2층, 165평 1동), 치유프로그램장(단층, 13평 2동), 치유숲길(3.5km), 해수온열치유실(해수욕탕), 해수치유길(물속 걷기 체험시설), 해수족욕장 등을 갖췄다.

치유숲길은 너울포길, 숲내음길, 동백향길, 해

오름길 등 총 4개 구간으로 이뤄져 있어 각 구간별로 특색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치유의 숲에서는 경관, 피톤치드, 음이온, 산소, 소리, 햇빛 등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

해수온열치유실, 해수치유길, 해수족욕장 등을

활용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함께 특색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약산 해안 치유의 숲이 급증하는 치유·힐링 수요에 부응할 것"이라며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해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발작물 관비공급장치 특허 획득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영광군이 발작물 관비공급장치 특허를 획득했다.

영광군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관비공급장치'에 대한 특허증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지난 2019년 12월에 출원해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27개월 만에 획득한 것이다.

최근 작물을 재배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할 것이 관수장치이다. 하지만 비료를 줘야 하는 경우나 작물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면 수작업으로 비료를 줘야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힘든 일이다.

이번 특허를 받은 장치를 관수시설에 연결하면 비료의 투입만으로 관수와 동시에 시비까지 할 수 있어 노동력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양액재배와 같이 물을 통해 비료를 쉽고 간편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 개발하게 됐다"며 "빨리 현장에 적용되어 많은 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에 일손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특허를 포함해 현재까지 8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전화 정신건강 상담...목포시 심리지원 서비스

목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비대면 온라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4시간 운영하는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목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 및 자살위험상담전화'로 전화하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할 수 있다.

목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마음 자가검진, 비대면 온라인 마음상담도 가능하다.

상담결과 불안·우울 등 지속적인 관리와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 록하면 마음건강 정보 제공, 정기적 사례관리 등

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심층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연계돼 심리지원을 제공받는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우울감을 겪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재난부서 대응인력, 자기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우울 검사 6387건, 심리지원 물품 제공 5525건, 7명에 대한 마음건강 치유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누구라도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우울, 불안을 겪을 수 있다"며 "심리지원 서비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목포시, 감사 분야 적극행정 활성화...면책기준 대폭 확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도 시행

목포시가 공직사회의 변화와 만족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활성화 한다.

목포시는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공직사회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2022년 목포시 감사 분야 적극행정 지원 운영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사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공무원이 상급기관(전남도, 감사원)의 컨설팅을 받아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를 면제하는 제도로 시는 제도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또 적극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공무원 보호와 법률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목포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감경 및 면책기준을 확대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문화가 도입되는 등 사회 각 분야가 크게 변화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자세가 필요하다"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감사를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영암군, 중대재해예방 TF팀 설치·운영

사업장 안전·보건 의무사항 점검

영암군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중대재해예방TF팀을 안전총괄과 내에 설치·운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할 수 있으며 적용 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중대재해예방TF팀은 팀장 1명과 팀원 2명으로 구성됐다.

신설된 중대재해예방TF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업장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이행 등을 점검한다.

또 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경영책임자(지자체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점검하고 이행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우선 행정기관 종사자의 안전 의식을 정착시키고, 더 나아가 민간에서도 안전에 관한 공감대가 빠른 시일 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군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군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영암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올해부터 골프관광도 추가

해남군과 해남문화관광재단은 관광객 유치와 체류형 관광 확대를 위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기간은 오는 12월16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해남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학교·기업이다. 지원은 지역 내 유료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지원조건을 충족 시 이뤄진다.

올해는 골프관광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가 추가됐으며, 이후 해남군 전담여행사를 선정하는 등 단체관광객 수요를 확대해 해남 관광을 더욱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신안군,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8곳 추가 설치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알루미늄 선상집하장 8개소를 설치해 눈길을 끈다.

알루미늄 선상집하장은 기존 PE 소재 대신 친환경 소재의 부유구조물로 제작·설치해 해양환경 보호와 항후 내구연한이 지나 폐기 시 재활용이 가능해 1석 2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은 어업활동 중 발생한 각종 페어랑과 어구 등을 바다에 띄워진 바지형 선상집하장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다.

어업인들이 조업 중 발생한 해양쓰레기를 육지 보관장소까지 가져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무단

투기와 바다로 재유입을 방지할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에서는 총 37개의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군은 쾌적한 해양환경 유지와 해양쓰레기 제로(zero)화를 위해 올해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양쓰레기알루미늄 선상집하장 6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해양환경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지원 예산 확보 노력과 자체재원으로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1522-9341